

NCR 제도개선방안 공청회 ('14.4.22)

증권회사 역동성 제고를 위한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 개선방안

2014.4.22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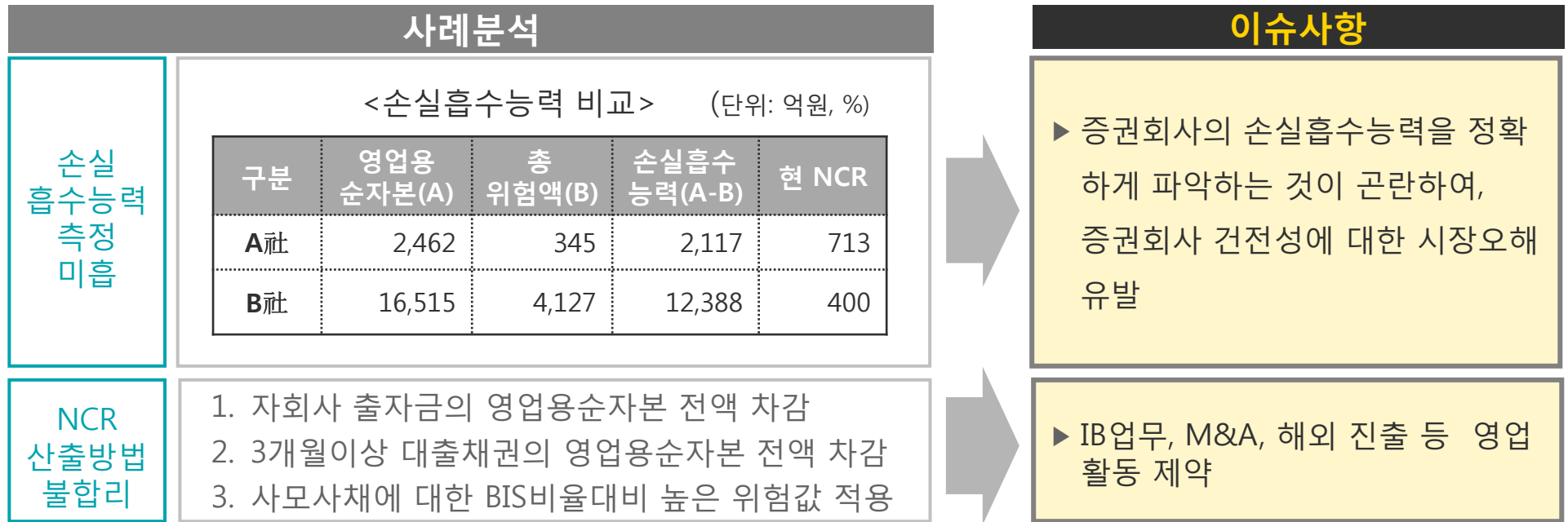
금융감독원

Table of Contents

I. 추진배경	3
II. NCR 현황 및 문제점	4
III. 개선방안	5
1. 산출구조 개편	5
2. 연결기준 NCR 도입	8
IV. 향후 추진일정	11

I. 추진배경

'97.4월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는 그동안 금융투자회사의 대표적인 재무건전성 지표로 기능하였으나, 변화된 증권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, 증권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NCR 수정 요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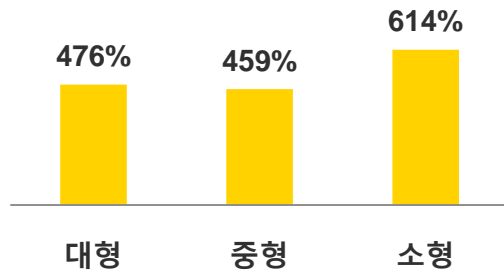
재무건전성 지표로서 실효성을 높이고, 영업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규제 개선 필요

II. NCR 현황 및 문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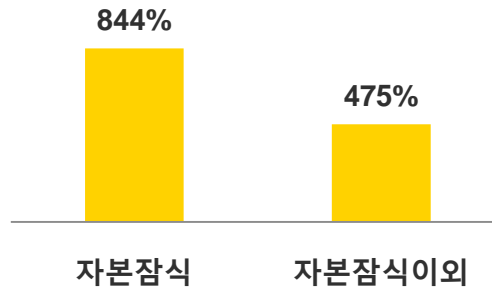
증권회사 60개사 평균 NCR 479% ('13.12월말 기준)

NCR
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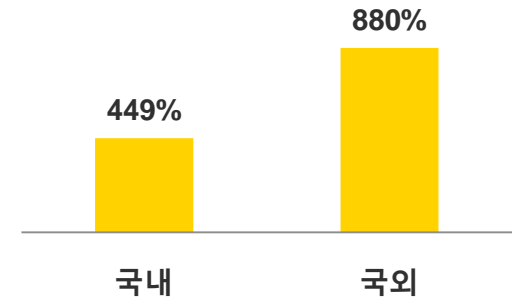
<규모별 분류>



<자본잠식회사별 분류>



<소재지별 분류>



문
제
점

재무건전성 측면

높은 변동성

- ▶ 특정거래로 증가된 위험액 대비 과도한 자본의 요구로 자본 활용의 효율성 저하

손실흡수능력측정곤란

- ▶ ELS·DLS 등 증권사의 신용 위험에 대한 정확한 손실흡수 능력 측정 곤란

영업활동 제약 측면

자회사 위험미반영

- ▶ 자회사 출자금액의 영업용순자본 전액 차감되어 M&A 및 해외진출 제약

기타

- ▶ 청산 시 현금화 가능자산의 영업용순자본 불인정 등 NCR 산출방법 불합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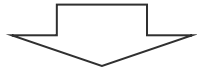
Ⅲ. 개선방안

1. 산출체계 개편

개요

[현행]

영업용순자본
총위험



[개편안]

영업용순자본-총위험액
업무 단위 별 필요 유지자기자본

산출체계
개편

적기시정조치기준 조정

- ▶ 예상치 못한 손실 차감 후 순자본이 법정유지자본이상인 되도록 경영개선권고기준을 100%로 조정

<적기시정조치 부과 NCR 요건(안)>

구분	권고	요구	명령
NCR	100%	50%	0%

시행시기 및 후속조치

- ▶ '15년부터 시행하되 '15년에는 구 NCR과 신 NCR 중 유리한 값을 증권회사의 NCR로 인정하여 업계부담 완화
- ▶ 현 NCR을 활용한 규제들은 산출체계 변경에 상응하는 기준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관련기관에 기준변경 요청

기대효과

- ▶ NCR 변동성 완화 및 재무건전성 지표로서 실효성 제고
- ▶ 잉여자본을 분자로 뒀으로써 증권회사의 손실흡수능력에 대한 평가 가능
- ▶ 투자 시 NCR 하락에 따른 위험투자기피 현상 완화 및 필요자본 확충 불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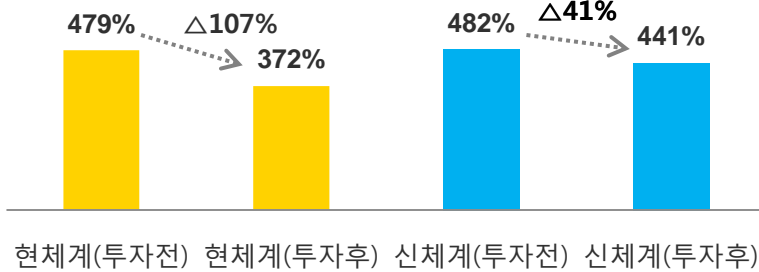
Ⅲ. 개선방안

1. 산출체계 개편_계속

▶ 산출체계 개편에 따른 NCR Simulation 분석결과 ('13.12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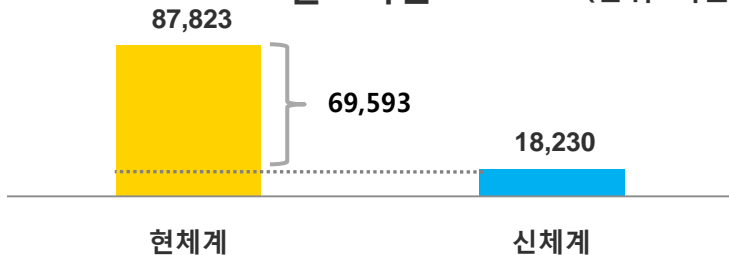
영향분석

NCR 변동성



필요자본

(단위: 억원)



세부내용

- ▶ 개편안 평균 NCR(482%)은 현행(479%)과 유사
- ▶ 각 증권회사가 영업용순자본규모의 50%만큼 투자(주식)을 늘렸을 경우
 - ① 개편안의 변동폭이 현행보다 감소
 - ☞ NCR하락폭(현행) Δ107%p → (개편) Δ41%p
 - ② 투자 전 NCR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자본은 개편안이 현행보다 크게 감소
 - ☞ 필요자본: (현행) 8.8조원 → (개편) 1.8조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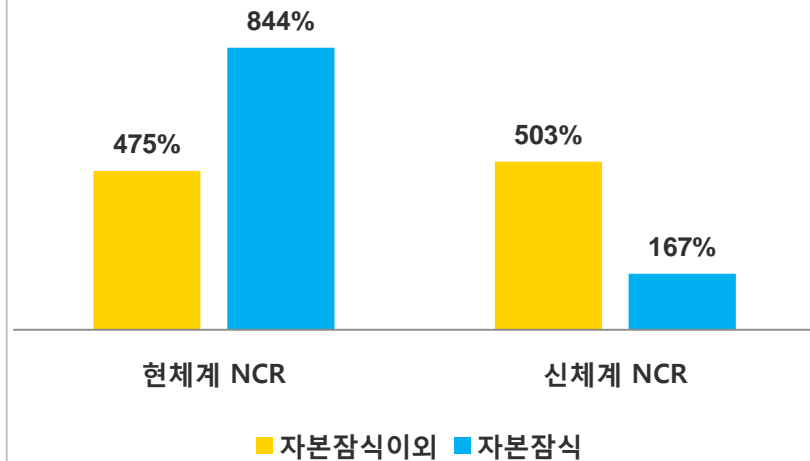
Ⅲ. 개선방안

1. 산출체계 개편_계속

▶ 산출체계 개편에 따른 NCR Simulation 분석결과_계속

영향분석

자본잠식여부



세부내용

- ▶ 현행 NCR은 자본잠식회사(844%)가 비잠식회사(475%) 보다 높으나, 개선안은 비잠식회사(503%)가 자본잠식회사(167%)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가능

Ⅲ. 개선방안

2. 연결기준 NCR 도입

- ▶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K-IFRS 연결재무제표상 모든 자회사에 대하여 분기별로 연결기준 NCR을 산출하되 연결대상 여부를 아래와 같이 판단

자회사	연결대상여부 판단요건	연결대상 여부	
非 금융회사	N/A	연결대상에서 제외	
금융회사	연결손실예상금액 > 투자금액(지급보증포함)	연결대상에서 제외	다만, 포괄적 지급보증이 존재하는 경우 연결대상 포함
	연결손실예상금액 < 투자금액(지급보증포함)	연결대상 포함	

- ▶ **금융회사의 정의** : 통계법 제 2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"K. 금융 및 보험업"과 금융기관 경영에 도움이 되는 보조적 금융서비스업(신용관리, 전산시스템, 연구조사, 현금수송, 특수목적회사 등)을 영위하는 회사
- ▶ **연결손실예상금액** : 자회사 위험액 + 자회사 차감항목 - 자회사 가산항목
- ▶ **포괄적 지급보증** : 보증 등을 통해 투자금액이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

2. 연결기준 NCR 도입_계속

▶ 연결기준 NCR의 구체적인 산정방법

구분	세부내용
<p>자회사 위험 산정방법</p>	<p>연결기준 NCR 산정 시 모회사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자회사의 자산·부채의 위험값을 모두 반영</p>
<p>연결제외 자회사의 위험산정방법</p>	<p>현행 NCR 산정방법 준용</p> <p>(예시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종속회사 : 영업용순자본에서 종속회사 출자금 차감 2. 유동화전문회사 및 수익증권 : 개별 NCR 위험을 총위험에 합산 3. 관계회사 : 투자목적 주식의 위험값 적용

2. 연결기준 NCR 도입_계속

영향분석

- ▶ 평균적으로 개별기준 NCR보다 연결기준 NCR이 높을 것으로 예상
- ▶ 자회사 유형별(금융회사, SPC, 해외현지법인)로 대표성 있는 7개 증권사 대상 Simulation 결과 연결시 NCR이 약 90% 상승

시범운영

- ▶ 기간 : '15.1.1~12.31 (1년간)
- ▶ 대상 : 자기자본 1조 이상 대형사
- ▶ 운영방법 : 연결 NCR을 산출하여 감독원에 CPC등을 통해 매 분기말 2달 이내에 제출

연결 NCR 도입

기대효과

- ▶ 자회사의 자산·부채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 반영으로 자회사를 포함한 전사적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 관리 가능
- ▶ 해외 진출 또는 M&A 영업활동의 제약요인을 제거하여 증권업계의 활력 제고
- ▶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연결자기자본규제제도 도입 및 시행 중으로 국제적 정합성 제고

시행시기 및 보고주기

- ▶ 시범운영 후 모든 증권사에 대해 '16.1분기 부터 본격 시행
- ▶ 매 분기말 +45일 이내로 산정 및 보고
- ▶ 매 분기별 적기시정조치 적용

IV. 향후 추진일정

세부추진단계	'14년				'15년	'16년
	4월	5월	6월	하반기		
1. 규정 및 세칙 변경예고						
2. 산출구조 변경 선택 시행						
3. 연결기준 NCR 시범운영						
4. 산출구조 변경 및 연결기준 NCR시행						